

순망치한(唇亡齒寒)

김 홍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입술이 없으니 이가 시리다. 입술이 없어 입을 완전히 다물지 못하면, 찬바람이 불 때 이는 고스란히 그 바람을 맞고 시리게 된다. 건설과 시멘트의 관계가 이와 같은 입술과 이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현재 시멘트 업계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시멘트의 대표적인 수요부문인 건설산업의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도 수요량 감소와 중소기업의 업체수 증가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값싼 인건비로 생산되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량의 증가, 유가의 급등,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때아닌 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일간건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내수는 4,600 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6% 이상 감소하였다. 내수출하량이 2003년 5,800 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시멘트 수입은 340 만톤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멘트의 내수가 이처럼 침체를 보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 수요의 85%를 차지하는 레미콘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이다. 시멘트 생산원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레미콘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시멘트의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문제의 원천이 되는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자. 2006년도 상반기 수주액은 약 2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정도 감소하였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외환위기 이전 1997년 수주액의 80% 수준이다. 건설투자도 상반기 동안 1.9% 감소하였고 2/4 분기에만 4.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의 악화 배경에는 정부의 SOC 재정투자의 축소와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정책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분간 토목 및 건축부문의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예측으로는 금년도 건설투자는 1% 이상 감소, 건설수주는 약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건설공사 수주구조의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턴키·대안입찰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중소형 공사를 묶어 BTL로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주방식의 변화로 과거 중소건설업계의 물량이 대형건설업체들의 몫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산기반 유지와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건설업계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은 당장의 예산제약 때문에, 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때문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최저가 입찰 공사의 저가 수주경쟁, 민자사업 또는 금융조달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발굴, 또 호황기를 맞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의 적극 진출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동향이 이렇진대 시멘트 업계도 더 긴 불황에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시멘트 수요와 직결되는 건설수주, 건설투자, 건축허가면적 등의 지표가 하강세를 계속하게 되면 상당 기간 시멘트의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시멘트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대상지역은 기존 거래선인 미국, 일본 외에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단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장 가동을 유지와 고정비 확보를 위해 이문이 거의 없는 수출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내수시장을 위해서나 내실있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설비의 합리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등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폐열회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연료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멘트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비하는 일거양득의 조치들이다. 우리나라는 일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면제 받았지만 2013년 이후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2003년까지의 호황기에 시멘트 업계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시멘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성능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초고층 빌딩이 유행하고 있으니 고강도 콘크리트의 지속적인 개발은 기본일 것이다. 센테니얼 주택이 연구되고 있다는데 그 근본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저비용의 유지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저균열, 저발열 콘크리트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관련 신소재 개발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도 시멘트 업계가 계속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건설이 재채기를 하니 시멘트 업계가 감기가 들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두 부문의 연결의 고리를 완화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수출을 늘려 내수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바라건대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시멘트가 만들어져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한다면 건설과 시멘트 업계 모두를 위한 쾌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 시멘트 업계의 건투를 기대한다. ▲